

아트 인 듀오: SELF PORTRAITS

August, 2018 | 탁영준

page 1 of 2

SELF PORTRAITS

하나의 작품을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은

영혼을 공유한다는 뜻일 것이다. 아트 월드에서 가장

유명한 듀오인 엘름그린 & 드라그셋(Elmgreen & Dragset)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서로의 영혼을 들여다본다.



'Couple, Fig. 17', 2018, MDF, PVC,
aluminium, stainless steel,
220,3 × 48 × 32cm

듀오로 활동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협업의 의미도 이제는 남다른 것 같다. 정확히 23년째다. 1995년부터 모든 프로젝트를 함께 해왔다. 근본적으로 늘 주고받는 대화가 협업의 핵심이다.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작업도 발전해나간다. 각자 따로, 독단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거라 상상해본 적도 없다. 생각만 해도 매우 외로운 것 같다. 함께 해온 시간이 있는 만큼 이제는 서로를 자기 자신만큼 낫거나 잘 안다. 물론 각자 달리 가진 배경, 겪는 경험, 얻는 정보 등에서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둘이 함께 할 수 있어 이로운 게 많다. 서로를 자극하기도, 짐작하기도, 나태해지거나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런으로써 우리의 호기심은 늘 생생히 살아 있다.

연작 '자화상(Self-Portraits, 2015-)'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미술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품 캡션 자체를 소재로 삼아 그대로 본뜬 듯이 제작된 작품이다. 듀오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자화상'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듯하다. '자화상'은 보통 작품 정보를 적어 벽에 붙여놓은 라벨을 크게 확대해서 유화나 테리식 조각같이 클래식한 매체로 재제작한 시리즈 작품이다. 단, 이 캡션들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모두 다른 작가의 작품들에 관한 것으로, 부차적인 캡션이 고스란히 미술작품이 된 셈이다. '자화상'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이 연작에 포함된 작품들 모두가 그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듀오 작가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두 사람이라는 복수의 합산물이고 또 둘 간의 창의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화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애매모호하고 어렵듯하다. 진정한 의미의 자화상은 '셀카' 낱장 그 이상이다.

지난 작업을 선행적으로 망라하는 회고전 제의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고 개인전 <일대기(Biography)>를 기획했다. 더불어 텍스트만 모은 출판물과 함께, 두 사람 각각 혹은 공동의 산재한 기억들을 그려온 600여 쪽 분량의 대형 사진 앨범을 메인 전시 도록으로 만들었다. 아직도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인지, 그저 오래된 것들을 한데 모아놓거나 지난 행적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게 썩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일대기> 전시는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풀어 쓴 게 아니라 '일대기'라는 개념 자체가 무뎠던지 고민한 전시였다.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다채로운 것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 때문이다. 함께 제작된 출판물은 전시의 기록물 형태가 아니라 매우 개인적인 사진첩으로 구성됐다. 넓은 의미로 확장된 어떤 한 가족의 앨범이랄까.

올해 두 개의 대형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9월 26일 런던 화이트채플 갤러리의 개인전 <이렇게 우리는 혀를 깨든다>(This Is How We Bite Our Tongue)는 기존의 조각작품들, 그리고 새로운 대형 장소 특정적 설치작품으로 꾸며진다. 오늘날 여러 시민들이 누리는 공간에서 민음과 신뢰가 무너지가는 양상에 관한 전시이다. 10월 중순에 열린 파리 페르모 갤러리 개인전은 맥락상 런던의 전시와도 연결되는데, 공공장소에 대한 생각을 담을 예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내외부 모두가 각종 산업 및 통제 메커니즘에 의해 장악되고, 우리의 정신적·신체적 공간들이 더욱더 축소되고 한정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코멘트다. 또한 피악(FIAC) 아트 페어 주최로, 파리의 역사적인 방두 광장을 100개의 빨간색 불가사리 조각으로 뒤덮는 작품도 공개된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휩쓸고 지나간 뒤 덩그러니 남겨진 것처럼.

한국에서의 다음 프로젝트가 있다면 귀땀해달라. 2019년 3월 국제 갤러리에서 두 번째 서울 개인전을 개최한다. 한국에 있는 그간 못 본 친구들을 만나자니 설레기도 하고 한국 음식 생각에 군침도 돈다. 글/탁영준(타티스트)

ARZI Einar Vestner



'Marriage', 2004. Mirrors, porcelain sinks, taps, stainless steel tubing, soap, 178 × 168 × 81cm
Photo by: Anders Sune Berg



'Boy Scout', 2008. Metal bunk bed, foam mattresses, sheets, pillows, woolen blankets, 183 × 207 × 77cm
Photo by: Anders Sune Berg/Kjersti Berg



'Queer Bar/Powerless Structures, Fig. 21', 1998. MDF, paint, beer taps, skirting boards, foot rests, bar stools, 150 × 300 × 300cm
Photo by: A. Kemezy